

	보도자료	
배포 시 부터 보도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·국제협력팀·산업금융과·은행과·보험과·자본시장과·금융제도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·국제협력국·보험감독국·금융중심지지원센터			
책임자	탁운성 글로벌금융과장 (2156-9780) 손성은 국제협력팀장 (2156-9660) 최용호 산업금융과장 (2156-9750) 이윤수 은행과장 (2156-9810) 이동훈 보험과장 (2156-9830) 이형주 자본시장과장 (2156-9870) 김연준 금융제도팀장 (2156-9680)	담당자	현지은 사무관 (2156-9783) 윤영주 사무관 (2156-9786) 서지은 사무관 (2156-9661) 오형록 사무관 (2156-9751) 김윤희 사무관 (2156-9814) 권기순 사무관 (2156-9835) 김성준 사무관 (2156-9876) 김정주 사무관 (2156-9682) 류성재 사무관 (2156-9683)	
	류찬우 은행감독국장 (3145-8020) 김성범 국제협력국장 (3145-7890) 진태국 보험감독국장 (3145-7460) 임세희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(3145-7150)		임채율 부국장 (3145-8022) 김금태 팀장 (3145-7903) 박진해 팀장 (3145-7476) 김동철 팀장 (3145-7160)	
배포일	'15. 7. 16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4매

제 목 : 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**중점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 추진 등 금융 세일즈외교 강화**
 - 베트남, 미얀마, 중국, 인도 등 주요 진출국과 당국간 공식 협의채널 구축
- **20억불 규모 시중은행 해외SOC펀드 조성(15.8월)**
 -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,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 해외SOC펀드 조성
- **해외진출 걸림돌 규제 제거(연내추진)**
 - 해외 지사 등의 설립 절차, 해외법인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, 해외 영업을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 최소지분율 규제, 보험사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연내개선

1. 추진 배경

- 저성장·저금리·고령화 기조에 따른 국내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확대가 필수
 - 그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,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해 여전히 국제화 수준*이 낮고 Profit센터로서의 역할도 부족
 - * 해외점포 자산비중('14년말): 국민은행 1.9%, 우리은행 5.8%, 외환은행 15.6%, JPMorgan 29.1%(13년말), Mizuho 44%(13년말)
 - AIIB 출범과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으로 틈새시장 공략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해외SOC(인프라·플랜트) 금융 공략준비도 시급
 - * 세계 30대 건설사 중 5개사가 우리 건설사로 세계 6위권 해외수주실적('13년 ENR)을 자랑하는 반면, 시중은행의 SOC PF 실적은 세계 70~100위권에 불과('14년 PFI)

2.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

- (금융외교채널 확충)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및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마련
 - 주요국 금융당국과 정례회의 개최*, 해외 금융당국에 금융정책 자문관 파견, MOU체결 등을 통해 당국간 공식협의채널 구축
 - * ① 한·중·일('06), 일본('12), 영국('14), 인니('15) : 정례회의 개최중
 - ② 베트남은 연내 협의완료 예정
 - ③ 인도·미얀마·중국 등 주요 진출대상국과 회의정례화 조속추진
 - 매 분기 “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”를 개최하여 핵심관리 대상국 선정, 주요행사 현황 공유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검토
 - * 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 참석 : 금융위·원, 업권별 협회, 해금협지원센터, 학계 등
- (해외SOC펀드 조성)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,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 조성
 - *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외환은행, 농협은행 등 참여예정
- (기대효과) 시중은행이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, 향후 AIIB

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

- (향후계획) 금년 20억불 규모 대출펀드 운영이후,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·증권사 등 참여기관 확대 추진



□ (규제개선)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

- ① (현지진입)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·회신방식을 개선 (10영업일 내 회신)하고,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(승인→신고)
- ② (영업기반 구축)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* 및 인력운영** 관련 규제 완화

*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으로 보증도 허용

**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은행의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담당직원 겸직 허용

- ③ (해외영업 확대)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*(예 : 자회사인 자산 운용사의 해외펀드 등)의 최소지분을 규제(상장 30%, 비상장 50%)를 면제

* 신탁형 위주의 국내 펀드와 달리 유럽 등에서는 회사형 공모펀드가 일반적

- ④ (보험사 해외SOC 투자) 보험사의 장기·중수익 해외SOC금융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

□ (글로벌 역량강화) 금융회사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 현지화 평가제도* 개편

* 은행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현지직원비율·현지차입금비율 등 해외점포평가, 초국적화지수·글로벌 업무역량평가(정성평가)등 본점평가를 통해 은행별 등급을 산출하여 비교·공표

-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,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

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

금융개혁회의(7.16)시 주요 논의사항

- 은행 현지화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지화평가 폐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,
 - ⇒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,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
 - 평가결과를 순위로 대외공표하는 방식을 지양*(개별통보)하고 획일적 기준 보완, 정성평가비중 확대 등 평가 지표 개선
 - * 개별은행의 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평가대상은행 전체 현지화 수준 및 특징,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, 우수사례 등은 대외공개
 - 현지화 평가의 성격을 현 상황 진단·개선안 제안 등 컨설팅 기능 위주로 운용
 - 해외진출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창구로도 활용(Two-way 방식)

3. 추진 계획

- 해외사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 시한을 정하여 연내 완료하고,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(8월중)도 신속히 마무리

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 「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」 참조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